



“ 송창식, 천하 제일 노래꾼 김세환, 환갑 넘어도 소년 정훈희, 맑은 고음 최고봉 ”

20~21일 '세시봉 친구들' 광주 공연 사회 맡는 이상벽



방송인 이상벽은 서울 무교동의 음악감상실 '세시봉'을 통해 이름을 알

리기 시작했다. '세시봉'에서 가수 조영남과 송창식을 발굴했고, 그들과 40년 넘는 인연을 이어왔다.

오는 20일(오후 8시), 21일(오후 7시30분) 두 차례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세시봉 친구들 두번째 이야기'에 참여하는 이씨를 전화 인터뷰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송창식·김세환·정훈희가 노래를 부르고, 이상벽은 이들과 추억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씨는 35년만에 처음 선보이는 정훈희와 송창식의 듀엣 무대를 적극 추천했다.

“지난 2010년에 열렸던 '세시봉 첫번째 이야기'와 달리 이번 '두번째 이야기'는 조금은 다른 스토리로 진행되죠. 이번 무대에는 정훈희가 합류했는데 그녀 역시 세시봉 멤버였어요. 윤형주와 송창식의 앙상블이 뭐 설명이 필요 없지만 송창식과 정훈희의 앙상블도 환상적입니다. 두 사람이 부르는 '안개'와 '하얀손수건' 등을 들으면 윤형주와 부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건 앨범으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오직 라이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짜 음악이죠.”

정훈희가 1967년 열일곱의 나이로 세시봉에서 노래를 할 때 그녀는 이미 '가수'였고 송창식 등은 가수가 되려 하는 사람들이었다.

“세시봉은 정말 순수하게 음악만을 듣는 공간이었어요. 술도 팔지 않았죠. 음향기기 같은 게 집집마다 보급이 안된 시절이었던 터라 듣고 싶은 노래는 세시봉에 가야 들을 수 있었죠. 팝송을 처음으로 부른 곳이기도 했구요. 제가 사회를 봤던 '대학생의 밤'이 아마 토크쇼의 원조격일 겁니다. 세시봉에서 인기를 모은 후 대학생 신분임에도 방송국에 스카우트돼 '명랑백일장'이라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밤

송창식-정훈희 듀엣 환상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프로의 진행을 맡으며 방송과 인연을 맺었으니 세시봉은 저한테도 잊을 수 없는 곳이지요.”

이번 공연에서는 각각의 솔로곡들과 함께 두 명, 세 명이 짝을 이뤄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준다. 무대 중간중간, 이씨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추억속으로 관객들을 데려간다.

“제가 홍익대 미대 3학년 때 '대학생의 밤' 행사를 진행하면서 송창식과 조영남을 스카우트했어요. 당시 어울려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거의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비하같은 것을 많이 알아요. 공연장에 오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40년 넘는 세월을 지켜본 각 가수들에 대한 존경을 부탁했다.

“송창식이야 말할 필요 없는 천하가 잘 아는 노래꾼이지. 김세환은 환갑 넘는 나이에도 소년 같은 풋풋함을 잃지 않는 친구고요. 정훈희같은 독보적인 소리를 갖고 있는 가수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녀처럼 청아한 고음을 내는 가수는 없죠. 요즘 젊은 가수들 노래는 별로 접할 기회가 없어요. 최근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가끔 나가 옛날 노래 리메이크하는 걸 듣게 되는데, 과거보다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이 간혹 보이지만 그 느낌은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씨는 송창식에 대해 이야기를 덧붙였다.

“송창식의 제일 큰 장점은 지금도 매일 노래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충실함이 오늘날의 가창력을 유지시켜주는 힘이지요. 웬만하면 돈벌이에 급급해서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서기도 하는데 송창식은 꼭 가야할 무대에만 가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결코 무대에 서지 않죠. 끊임없는 연습, 그게 그에게 생명력을 갖게 해줍니다.”

이씨는 전국 각지로 공연을 다니면서 다양한 관객 반응을 접했다고 했다.

“의외로 객석에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같은 시절을 경험했던 어른 세대들은 향수를 채워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무대에서 불러지는 노래가 모두 신곡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어른 세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를 확인하는 현명한 거죠. 세시봉 멤버들이 팝송을 불렀던 거의 원조들인데 발음도 정말 완벽해요. 젊은 관객들이 놀라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도 맡고 있는 이씨는 인기 가수 중의 한명이기도 하다.

“제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인생 이모작'이에요. 기자로, 방송인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제 자신도 사진작가로서의 이모작을 시작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죠. 장수 시대를 맞아 50대 이후의 또 다른 인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대비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최근 세시봉 멤버들과 진행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공연에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는 이씨는 “공연장을 찾아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11만1000원~7만7000원. 문의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나는 음악 듣고 복讖 어린이 돕고

김원중 달거리 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뽕만드는 공연’ 김원중(사진)의 달거리 4월 행사가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4월 공연의 주제는 ‘바람이 싹을 틔운다.’ 이날 공연에서는 김광철씨의 퍼포먼스, 강윤숙(재즈피아노)·김상광(베이스)·임민수(드럼)씨로 구성된 ‘강윤숙 재즈 트리오’, 소리꾼 윤진철씨 공연이 펼쳐진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신인 소개 코너에는 ‘마인스 이어’가 출연하며 주홍씨의 샌드 애니메이션도 만날 수 있다.

신현정·조성우·박우진·송기진씨로 구성된 ‘김원중 느



‘달거리 공연’은 매달 셋째주 월요일에 시민들을 만난다.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 mekim@

티나무 밴드’의 흥겨운 무대가 이어지며 서양화가 조근호씨가 무대 디자인을 맡았다.

파로 티켓은 판매하지 않으며 공연 관람 후 로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정성을 더하면 된다.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빵을 만드는 공장에 보내진다.

“예술 찾아 자유 여행 떠나요”

광주 청소년문화의집 내일

‘보헤미안 여행학교’ 설명회

광주시 청소년문화의집은 ‘보헤미안 여행학교’ 입학설명회를 갖는다. 14일 오후 2시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홀. 창의예술학교 일환으로 마련된 ‘보헤미안 여행학교’는 자유롭고 예술적인 여행을 청소년 스스로 기획해 다양한

세상을 만나러 떠나는 학교다. 보헤미안 여행학교에서는 길잡이 교사와 컨설팅을 맡아 진행하며, 여행의 공동경비와 테마별로 어울리는 보헤미안(예술가)의 동행을 지원한다. 참가자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 계획을 세우고 1년에 3차례 1박 2일, 3박 4일 동안 여행을 떠난다.

모집 대상은 14~19세까지 청소년 50명이며 중·고등학교생, 대안학교 학생, 홈스쿨링 청소년 등이다. 마감은 오는 26일까지 선착순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신청서는 28일이다. 문의 062-375-1326.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원로예술인회, 예술진흥 토론회

(사)광주원로예술인회가 주최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콘서트홀에 광주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토론회에는 예술인회 범대순 회장을 비롯해, 노성대(광주문화재단 대표), 노희용(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씨 등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노실장의 광주시 문화정책 설명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회원들은 광주근대미술관 설립 추진 과정, 어떤 폴리 장소선정과 정책성 문제, 국악공연장 부재, 광주시 문화 정책에서의 문화 확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선거법으로 삼금 지급이 중단된 문화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담변에 나선 노실장은 문화상의 경우 수상자 전시와 공연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폴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 올해부터는 광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작품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 시민들이 찾고 즐기는 장소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야금명창... 그 멋의 향연

전통문화관 내일 '현의 노래' 공연

주말,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문화관에서 흥겨운 국악 공연이 열린다.

전통문화관은 14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토요상설무대 국악 그룹 '현의 노래' 공연을 선보인다.

‘가야금명창 멋의 향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25현 가야금과 대금, 신디사이저, 장구가 어우러진 가야금 명창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김춘수의 시에 곡을 붙인 창작곡 ‘꽃’ ‘그대가 내 남편이’, 를 드라마 ‘태양인 이계마’의 주제곡 ‘여인’, 신민요연곡,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0,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축적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탁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